

이런 정보도 있습니다.

유호정 · 위험조사부 사원

1. 촛불로 인한 주택 화재 증가



촛불로 인한 주택 화재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였는데,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놀랍게도 20%나 뛰어 올랐다. 이 수치는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이다.

NFPA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9년은 최근 20년 만에 주택에서의 촛불사고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해에 대략 15,040건의 주택 촛불사고로 102명의 사망자와 2억7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1,47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전년도 대비 33%의 증가를 보였다. 1990년에는 단 5,460건의 주택화재만이 촛불로 인한 사고였다.

주택 촛불화재는 겨울에 더욱 빈번하다. 1999년 겨울에는 월평균 촛불화재 건수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촛불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크리스마스 때 정점에 다다랐는데, 이때에 주택화재의 10%정도가 발생하며, 그 다음으로는 새해 첫날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한다.

10건의 화재 중 4건은 촛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방치해 두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다루어진 경우이다. 4건의 화재 중 1건은 가연물질이 화염에 너무 가까이 있어 발생한 경우이다.

10건 중 4건의 촛불화재는 침실에서 시작되었고, 10건 중 2건은 거실이나 가족 휴게실, 서재 등의 휴

식공간에서 시작되었다. 가장 많이 처음에 불이 옮겨 붙는 물질은 12월을 제외하고는 매트리스나 침구류이다. 12월에는 장식류가 가장 많이 불이 붙는 물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nfpa.org/Research/NFPA Fact Sheets](http://www.nfpa.org/Research/NFPA_Fact_Sheets) 를 참고하십시오.)

2. 아이들은 NFPA의 안전 메시지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 11월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에 대한 14번째 기념식에서 유니세프 사무총장인 케틀 빌라미는 아동을 그들의 발전 의제의 중심에 넣어 달라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역사상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인 이 협정은 전 세계 모든 곳의 어린이들의 생존과 충분한 성장, 그리고 해로운 영향과 학대, 착취에서의 보호, 또한 가정과 문화, 사회적 삶에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은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오직 어느 정도로 밖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어린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하고 에이즈로 가족을 잃는다. 또한 테러분자의 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배고픈 채로 잠든다.

전 세계 어린이들은 또한 화재를 포함한 많은 방지 가능한 상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해로부터의 안전은 어린이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가. 안전 프로그램의 부족

그러나 많은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화재 안전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점차적으로 그 나라들은 'Learn Not to Burn' 과 'Risk Watch'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훈련 기술과 기본 내용들을 제공하는 NFPA의 공공 교육부서와 고위험구조센터(Center for High-Risk Outreach)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이 화재와 인명안전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선 이것들은 겁을 주는 방법을 피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고 화재안전의 행동규범을 가르치기 위해 긍정적이고 위협하지 않은 메시지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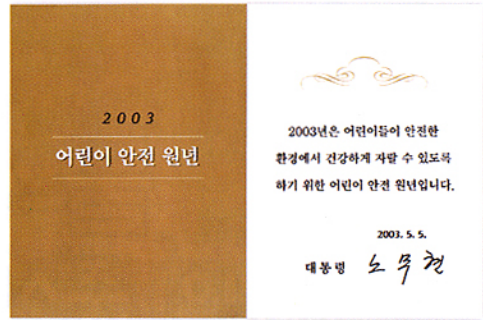
나. 긍정적 메시지

이러달리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바턴을 지니고 또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건네어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경우 "절대 바턴을 떨어뜨리지 마라" 식의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아이들이 겁먹지 않을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선 너는 이 바턴을 손에 지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에 더욱 효과가 있다.

다. 유사한 도전

소방관들과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운이 좋게도 화재를 예방하거나 만일 화재가 발생



▲ 안전원년 선포문 (노무현 대통령 서인)

했다면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이것들에는 상처를 줄 수 있는 뜨거운 물건들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옷에 불이 붙었다면 행동을 멈추고, 넘어져서 구르기, 또는 화재장소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연기 밑으로 낮게 기어가기 등이 있다.

또한 'Learn Not to Burn' 과 'Risk Watch' 는 인종이나 성별, 또는 신체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어디에서나 안전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각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인쇄된 자료들은 어디에서 쓰이던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관들과 공공 교육자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행동규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다. 유니세프 협정처럼, 'Learn Not to Burn' 과 'Risk Watch' 는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구라도 안전행동규범을 가르치는 것을 지원한다.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교육자는 모든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개선시킨 방법에 의해 NFPA의 공공교육 프로그램이 확립한 기본적인 긍정적 원리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8)